

민주평통 해외자문회의 초청 다과회

주어진 한 권력을 사용 할 것이며, 모든 무력행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당, 언론등 모든 영역이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가장 절실히 생각하는 한마디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통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자란다면 앞으로 채워서 꼭 자랑스러운 대통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만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만나고 국내 들어와서 많이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사람보고 자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한국의 동포들이 나가서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위 확보하고 열심히 사는 것 보면 정말 고맙고 또한 기쁩니다. 여러분 보면서 국력을 느끼고 대단히 국력이 든든한 나라의 대통령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내 생활 불편, 그런 것에 관해 세심히 살피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설명하면 대통령 되고 장관을 임명할 때 자제들 국적 문제로 곤란하다 했습니다. 감사원장 임명에서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적 문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등으로 여러분 많은 불편을 겪고 국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국내 귀국해 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부터

는 좀 더 개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임명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국적 등으로 불편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불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제 판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TV만 보면 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신문을 보면 기죽는 수준이 아니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제 평통회의 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말씀들 하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살 살피고 했는데 박수를 크게 쳐주시고 나갈 때도 얼른 나가려 했는데 박수 받고, 또 여러분들이 악수하고자 손을 내밀고 해주셔서 “이렇게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엄청 용기가 살아났습니다.

정책은 정책 중심으로 비판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하고 용기가 살아났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새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한국은 잘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새 시대에 맞게 잘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나는 무력행사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무력행사 반대에 대한 찬반 평가는 말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단지 한미관계가 불안해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할 때쯤 무력행사 이야기 들어가고 평화적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문제, 이라크 전 문제, 사스 극복문제, 노사관계 정비문제 등에 대해 불안, 걱정 많았지만 실제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잘 된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말 새로운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교적 잘 매듭지어졌습니다.

정책으로 비판합니다. 왜 자꾸 흥만 붙니까. 제가 실수를 좀 했던 건 인정합니다. 다들 주먹 들고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래서야 대통령 해먹겠냐 했습니다.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쪽수라고 표현하고,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을 한방에 날린다는 등으로 쉬운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서민들과 어울려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공식자리가 아닌데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기분 좋고 한데 글로 쓰면 곤란해집니다. 기사로 쓰면 이상해집니다. 대통령의 체면을 봐서 쓰면 가십이나 1단이지만 톱으로 씁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매력을 부각시킨 거라면 좋겠습니다.

반칙없이 실력으로 경쟁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정책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기부양을 쓸 것인지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을 책임 있게 내놓는 정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갑니다. 대통령이 힘이 없습니다. 정당의 공천권도 없고 당직자 임권도 없습니다. 정당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자율적으로 하고 국정원도 조용하고 국세청, 경찰 등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활용해온 기재, 수단 모두 놓았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사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발적인 존경은 미국의 대통령만 못하나 주어진 권리는 미국 대통령 못 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백의 경쟁이 너무 많습니다. 백 보다 실력과 노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사회로 갑니다. 백을 써서 성공하는 사회에서는 백을 쓰는 는 데로만 가게 되지만 이제는 반칙을 안 쓰고 실력으로 경쟁하고, 노력해 성공하는 사회로 갈 것입니다. 실력으로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옛날 대통령의 권력을 맛봤던 사람, 그 주변사람, 당의 사람들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져라. 5년 뒤에는 그만큼 진전시킬 것입니다. 이 방향이 맞습니다. 초심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공직사회 확실히 개혁하겠습니다. 나쁜 통계 이룰테면 부패 등은 절반으로 줄이고 투명성 등은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5년, 또 5년 뒤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왜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언론 탄압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는 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 안하려 합니다. 싸우긴 왜 싸우나? 언론사 세무조사 등 이런 것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사실과 다를 때 정정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때 사무실 무소불위, 마구잡이로 취재해서 일에 방해 되서는 안 되고, 일하는 데 서류 뺏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기 할 일 하고. 기자만 보면 비실 비실 하고 밤 12시에 정치부장이 찾아가 고쳐달라거나 빼달라고 왜 합니까? 기자들도 언론 윤리강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밥 얻어먹거나 사주면서 기사 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 자꾸 맞으면 매집이 생깁니다. 자꾸 거짓말로 비방하고 공격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1년이 지나면 언론의 공격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언론도 주어진 역할만 하고 군림하거나 ‘맛 좀 볼래’ 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한 사회라고 봅니다. 신문은 재미로 봐야합니다. 저도 가끔 재미로 봅니다. 대통령이 실수해서 잘못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서서(주재국)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주십시오.